



[산업]
최태원 SK회장
中 보아오포럼서
사회적 가치 전도
06

28 Market Index			
↓ 코스피	2128.10	↓ 코스닥	719.72
	(-17.52)		(-8.73)
↓ 금리 (연고채 3년)	1.68	↑ 환율 (원/달러)	1136.80
	(-0.04)		(+2.30)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은퇴설계, 선택 아닌 필수... 라이프스타일 바꿔라”

100 PLUS 2019 metro[®]경제 **100 PLUS FORUM**
2019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안정적인 노후 준비 위해
은퇴설계 인식변화 필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사장
“가능한 빨리, 태어나서부터
자본주의·주식 가르쳐야”

한국에서 인간수명 100세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 시대는 이제 낯설지 않다. 늘어나는 수명 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도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데 막상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퇴한 이후다.

전문가들은 호모 헨드레드 시대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스타일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금까지

웰빙(Well being), 웰다잉(Well dying)을 중요시했다면 앞으로는 웰리타이어링(well retiring)에 주목해야 한다”며 “웰리타이어링은 단지 노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호모 헨드레드 시대를 맞이했지만 연기금 등 사회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우리사회 구성원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금감원도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원칙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150여 명의 투자자와 금융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100세 시대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고민했다. 특히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가계 부채는 급증했고, 증시와 부동산 모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도 컸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19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국은 가계자산 중 연금가입률과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작아 은퇴 후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13.2%)은 미국(67%), 일본(67.5%), 독일(84.3%)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노후 주요 수입원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사장은 “노후 준비는 가능한 빨리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자본주의와 주식을 가르쳐야 하며, 금융 교육의 부

재가 노후준비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리 사장은 또 “한국인의 90%가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며 “100세 시대에 부모와 아이들 모두를 양육해야 하는 ‘더블케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온 가족이 다같이 투자해야 하고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치투자자의 대명사인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

장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싸고, 귀하고, 소외된 자산’에 가치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노후자산관리에 있어 가치투자가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다”며 “구조적 성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리츠(REITs)를 제

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남궁 대표는 “부동산 리츠의 평균 수익배당률은 7.59%로 예금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며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지만 여윌돈이 없거나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돈이 나왔으면 하는 고객에게 공모 리츠상품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츠 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함께 움직인다”며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고려했을 때 리츠의 주가 또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직접 투자라면 주택시장 조정기인 만큼 투자기간을 길게 잡아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기엔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노후 재테크를 위해 수익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지속 보유해야 한다”며 “특히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호재가 있는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L5·L6·L7)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회계논란 책임” 박삼구 금호회장 ‘전격사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다. 최근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삼구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회장직,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 금호고속 사내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한다. 이는 박 회장이 현재 가진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의 퇴진은 전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연임안부결로 경영권에 제한을 받게 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27일 제

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KDB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금융시장 혼란 초래에 대한 그룹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기 전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제출기한을 하루 넘겨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시장 불신을 키웠다. 이 여파로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주식시장에서 두 회사의 주식 매매가 22~25일 정지됐다. 이후 회사채를 상장폐지시킬 위기까지 몰렸다.

650억원 규모의 영구채 2차 발행도 제동이 걸렸고, 회사채상장

폐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한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ABS 미상환 잔액을 즉시 조기 상환해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자칫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서상장채권 폐지 사유가 해소됐고 매매도 즉시 재개됐다.

그룹 관계자는 “대주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 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그룹의 경영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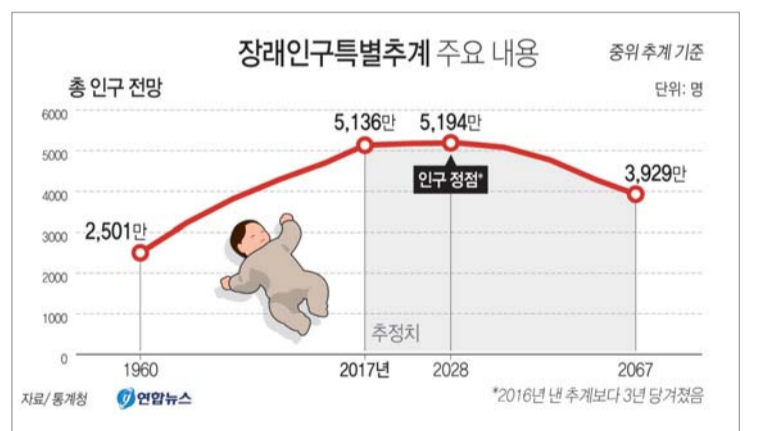
인구 쇼크 현실화... 올부터 자연감소

2029년 총 인구 감소 전망
초저출산에 3년 더 빨라져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인구는 10년 후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도 2020년부터 연평균 33만명 감소해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할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관련기사 3면)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했다.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인데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1982년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특히,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7월부터 다음 해 6월을 기준으로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명, 2067년에는 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명, 2019년 31만명, 2067년에는 74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가 되는 셈이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저출산 추세가 가속하면서 10년 앞당겨졌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위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 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전망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